

정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광주·전남이 유신 찬양세력 재집권 저지”

만남사람=박지경 정치부 차장

민주, 역동적 경선 만들어 정권교체 해야

안철수 원장은 극복 대상이자 연대의 대상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는 만족스럽지 않는 경선 성적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고 까다로운 질문에 미소를 잃지 않고 여유있게 대답했다. 2일 정 후보를 만나 그의 포부와 가치관, 비전을 들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뭐가 될까.
▲경쟁과 민생이다. 금융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을 넘었고,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 후퇴도 모자라 유신 찬양세력이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유신세력의 집권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 후보의 장점은.
▲경쟁과 정치를 모두 잘 아는 후보다. 정세균 정치의 강점은 통찰력과 갈등 조정 능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다. 나는 민주주의와 민생, 통일을 지켜왔던 호남의 정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또한, 표의 확장성은 내가 가장 크다.
-언제부터 대통령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나.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다.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니 늘 몸가짐, 마음가짐이 조심스러웠다.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은 늘 마음 한구

석에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것은 '분수경제'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2010년 겨울부터였다.
-온화한 성품이 장점이라고 꼽히지만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영웅적 카리스마를 내 역할 모델로 삼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정치를 하면서 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일에 주력했다. 박근혜 후보에 맞서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켰고,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강원도지사를 배출했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이뤘었다. 이것이 정세균식 카리스마다.
-현재까지 경선 성적이 좋지 않다. 반전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북 경선에서 2등을 하니 이제야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이 살아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절반의 성과에 불과하다. 전북에서 역동성의 불씨를 살렸으니, 나머지 절반은 광주·전남에서 채워줄 것으로 확신한다.
박근혜 후보와 맞서 싸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역동적인 경선을 만

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처럼 뻗은 경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선 도중 사퇴할 수 있다는 전담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결정은 어렵게 하지만 한 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찰하는 것이 내 소신이다. 또 한번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정치를 해왔다.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중도포기는 없다.
-이번 대선후보 경선이 공정하다고 보나.
▲일단 제기된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아주 작은 문제라도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불공정성 시비를 담아서라도 가만 결구적으로 민주당도, 민주당의 후보도 흔들릴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후보 등 친노 직계에 의해 호남 공직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등의 '친노 호남 푸대접론'이 퍼져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호남의 지역발전 전라이나 호남 인사의 중용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다. 이번 경선도 사실상 호남

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이만큼 민주당과 생각과를 같이 해 온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했다. 지금 경선은 새누리당 당원이 꼬박 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것과 민주당 당원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똑같이 취급되는 구조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안철수 원장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나.
▲극복의 대상이자 연대의 대상이라고 말해왔다. 민주당의 후보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봐도 민주당의 후보만으로 정권교체가 어렵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제 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
/jkpark@kwangju.co.kr



DJ 권유로 정치 입문... 15대 국회 입성 5선 의원

■ 걸어온 길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50년 9월 산골 오지인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무진장'(무주·진안·장수)은 그의 상징이자 그를 대변해주는 단어다. 정 후보의 집안은 너무 가난했다. 그는 검

고교시로 중학과정을 마친 뒤 1971년 고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유신 반대운동을 했다. 대학 편 가정보고사로 학비를 벌었다.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 영업사에 입사해 시멘트 영업 등 국제 영업의 최전방에서 활약했다.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1996년 제15대 국회 입성을

시작으로 지난 4·11 총선까지 내리 5번 국회의원을 맡았다. 그는 지난 4·11 총선 때 '무진장'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료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후견인인 홍사덕 전 의원에게 압승을 거뒀다. '종로 대첩'은 정세균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당대표를 지낸 정세균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신사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세균의 인기는 높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아파트] 2012타경 3296, 2012타경 3371, 2012타경 3531, 2011타경 6175.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2타경 2811, 2012타경 305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1타경 6175.

매각물건 상세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12타경 2811, 2012타경 305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2012. 9. 3. 광주시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은 공인중개사. 급구 ☆전남지역☆ 염전양어장 (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 신창동 신가동. 파실분헌영! (8억 ~ 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가중!> <사실분도 문의헌영> (수익률 높은 임룸 많이 있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분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분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면적 600평(31억) 임대보증금 2억5천만 월임대료 1,500만원